

석유화학기업 주식 계속 투자하라?

동양종금증권, Katrina 영향 업황강세 지속 ... 10월 중순부터 하락세

동양종금증권은 추석연휴 이후에도 석유화학·정제업황의 강세가 이어질 것으로 9월13일 예상했다.

석유정제는 허리케인 카트리나(Katrina)로 인해 휘발유, 등·경유 등 석유제품 공급이 수요에 비해 여의치 않은 상황이 이어지고, 석유화학 역시 북미지역 화학기업들의 원료 공급난으로 공급이 넉넉지 않아 북미와 남미 수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중국 해양석유총공사(CNOOC)와 이란 NPC의 대형설비 가동을 고려할 때 화학제품 가격은 10월 중순부터 하락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따라서 S-Oil(목표가 10만원), SK케미칼(2만원), KP케미칼(7500원), 제일모직(2만6000원) 등에 대한 선별적 투자가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또 대표적 고배당주인 LG석유화학(2005년 예상배당금 1750원)은 연말 매수전략이 유효하다고 주장했다.

<화학저널 2005/09/14>